곡성군 "기업 규제 찾아가서 해결해드립니다"

겸면농공단지 3개 기업체 방문 애로사항 청취

"기업과 소통하며 기업하기 좋은 곡성 만들 것"

곡성군이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겸면농공단지 3개 기업체를 방문해 지방규제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기업 측에서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개선하고, 지방 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책을 강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A기업 대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산업단지와 군에서 운영하는 농공단지가 각종 지원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지역을 살리고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산업단지 수준의 지원 또는 그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주변 인프라 부족으로 생산단가가 높아 도시 기업과의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해 주거시설 부족, 외국인 근로자 주52시간제 적용 예외(강제보다는 권장사항으로 규정해 줄 것)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장 내 도로 배수관 정비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작년 수해 이후 농공단지 주변 배수로는 잘 정비됐으나 국지성 호우로 공장 안에 있는 도로 배수관이 막혀 불편하다며 해결책 검토를 문의했다.

곡성군은 기업규제와 관련 요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의견을 전달하고, 중앙부처의 답변을 해당 기업에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배수관 정비와 같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통보해 해결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군 담당자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기업 및 소상공인과 소통하며 기업하기 좋은 곡성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해영 기자

"깨끗한 마을 우리 손으로"…나주 남평읍, 실개천 정화활동

우리동네히어로·방범대·의용소방대 등 구슬땀

나주시 남평읍 기관·사회(봉사) 단체 회원들이 '클린(Clean) 남평 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남평초교 뒤편 실개천에서 대대적인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주민들의 산책 코스로 이용되고 있는 실개천 구간에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근 하천에서 떠밀려온 쓰레기들이 곳곳에 널려있고 풀이 무성하게 자라 미관, 통행 상 불편이 이어져왔다.

이를 위해 지난 25일 남평읍 우리동네히어로(단장 최라현), 방범대(대장 이정호), 의용소방대(대장 김현태), (사)청소년선도위원회나주시지부(지부장 이민철) 회원 40여명은 주말을 반납한 채 실개천 주변 풀베기, 갈대 제거, 쓰레기 수거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신병철 남평읍장은 "땡볕 더위 속에서도 쾌적한 마을 경관 조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에 참여해 주신 단체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봉사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와 깨끗한 남평을 조성해가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화순군, 가축 폭염 피해 예방 당부

여름철 가축 피해 예방 및 축사 환경관리 당부

화순군은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축산농가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축산농가를 방문, 폭염피해 예방활동을 펼치면서 축산시설과 가축 사양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일반적으로 기온이 27~30도 이상의 고온이 지속되면 가축 체온이 상승하고 사료 섭취량이 감소해 증체량 감소 및 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심할 경우 폐사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정 사육밀도 준수와 사양 관리가 중요하다.

한우 축사, 돈사 관리는 ▲지붕에 물 뿌리기 ▲송풍기 설치 ▲안개 분무 장비 설치 ▲단열재 설치 ▲사육밀도 적정 유지 ▲충분한 물 공급 ▲비타민, 미네랄 급여 ▲물통, 사료통 청소 등이 중요하다.

닭, 오리 축사 관리는 ▲스티로폼 등 부착을 통한 온도 상승 방지 ▲지붕에 물 뿌리기 ▲환풍기를 통한 강제통풍 ▲사육밀도 적정 유지 ▲폭염시간 축사 출입 제한 등이 중요하다.

화순=박순철 기자

구례 복내리는당산나무, 대한민국 대표 쌀가공품 TOP10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 주최하고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회장 김남두)가 주관하는 '쌀가공품 품평회'에서 2021 대한민국 대표 '쌀가공품 TOP10'에 구례군 농업회사법인 복내리는당산나무(대표 김상수)가 선정되었다고 26일 밝혔다.

'2021 쌀가공품 품평회'는 쌀로 만든 떡, 면, 과자, 전분·당류, 조미식품, 음료, 주류 등 다양한 쌀가공품을 한자리에 모아 한해의 대표'쌀가공품 TOP10'을 선발하는 대회이다.

올해는 3월 출품을 시작으로 MD평가, 기획전 소비자평가, 위생 현장평가, 종합평가 등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쌀가공품 TOP10'은 맛·품질·상품성을 갖춘 대한민국 대표 쌀가공품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다.

농업회사법인 복내리는당산나무는 동남아 최대 이커머스 쇼피(Shopee) 및 인도네시아 자카르타(iStyle) 입점 등 해외시장 진출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농림축산부 장관상, 부상 시상과 더불어 TOP10 로고 사용권이 부여되며, TOP10 로고 부착 등을 위한 포장지 개선비 지원 특전이 주어진다.

김순호 군수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역 업체들의 판로 확보 및 소득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례=박진호 기자

장성군, 남창계곡에 안전관리요원 배치

장성군이 대표적인 물놀이 휴양지인 북하면 남창계곡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했다.

북하면 신성리 입암산 기슭에 있는 남창계곡은 여섯 개의 골짜기가 약 3km 규모로 이어진 '천연 워터파크'다.

올해에도 남창계곡 내 주요 지점 5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구명장비함을 철저히 관리하고, 안전수칙 안내 현수막을 눈에 잘 띄는 곳에 걸었다.

아울러, 지난 6월 공개채용을 통해 2명의 안전관리요원을 선발했다. 안전요원들은 소방서에서 주관하는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하고 7월부터 남창계곡에 배치됐다. 현장에서는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노란색 안전조끼와 모자를 착용한다.

기동취재본부

담양군, 주민 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

편익 증진 위해 총력 경주

담양군이 행안부 주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 사업' 공모에 3개 사업이 선정되며 군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담양식 혁신 모델 구축에 한발 더 가까워지게 됐다.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공모에서 3개 사업이 선정돼 7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가 각종 평가, 경진대회 등을 통해 발굴한 전국적 확산이 가능한 우수혁신사례 중 도입을 희망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통해 우수 시군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사업은 ▲ 도심 속, 한평정원(2천만 원) ▲ 도로 물고임 완벽 해결(3천만 원) ▲지적행정 ONE-STOP 시스템 구축(2천만 원) 등 총 3개 사업이다.

군은 도심 속 한평정원 조성사업으로 '한국정원문화원'과 연계해 군민 주도로 가꿔나가는 정원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로 물고임 완벽 해결 사업'을 통해 물고임으로 인한 도로 이용자의 불편해소와 교통사고 위험률을 낮추는 효과를, '지적행정 ONE-STOP 시스템 구축'으로 토지개발 인허가·건축·지적·세정 등과 분할·지목변경과 같은 토지이동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부서를 직접 찾아다니며 민원을 해결해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군은 지난 5월 '생명·포용·미래의 담양 실현을 위한 담양식 그린뉴딜 정책'을 바탕으로 문화·사회·보편적 가치를 강화하고 지역민의 불편 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한 지역 특성에 맞는 '담양군 혁신 과제'를 발굴해 추진 중이다.

발굴과제는 군민 참여(협력)·공공서비스·일하는 방식 등 총 3개 분야에 66개 혁신과제로 '참여와 신뢰를 통한 군민의 삶이 바뀌는 행복도시 담양' 구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담양=박종영 기자